

우수 축구선수의 개념화

정청희*·윤영길**

I. 문제 제기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의 경기력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되고 있다. 경기력은 경기 상황에서 선수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체력, 기술, 전술, 심리 등 다양한 변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선수의 경기력은 해당종목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는데, 전문성 관점에서 선수가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준비, 노력, 훈련을 통해 최상의 경기력을 지속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함을 의미한다. 경기력 관점은 전문성과 밀접히 연계되는데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 전문성은 운동숙련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전문성 연구는 체스(Simon과 Chase, 1973), 음악(Chase와 Ericsson, 1981), 교육(유정애, 2000)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식이나 사고과정, 행동 등을 탐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스포츠에서 숙련성은 숙련 선수의 수행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숙련자와 초보자의 특성 비교를 바탕으로, 숙련자의 수행 회상을 기반으로 한 패턴 재인 패러다임(pattern-recognition paradigm)과 숙련자의 운동 수행 지식에 집중한 지식기반 패러다임(knowledge-based paradigm)으로 양분된다.

초보자와 숙련자 비교(McPherson, 2000), 면접을 통한 숙련자의 특질 파악(McPherson과 Thomas, 1989), 기능 수준에 따른 수행자의 특성(박승하, 2002) 등 인간의 운동 기능 발달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운동 발달을 주제로 한 연구의 대부분은 피험자의 상황에 따른 구두 진술이나 실험실 상황의 연구라는 결과 중심의 형식적 제한에 부딪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운동 숙련은 운동 능력 발달의 결과를 의미하며 운동 발달을 위해서는 운동 기술 학습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술 실행의 효율성(Sparrow와 Irizarry-Lopez, 1987)과 관련되어 있는 운동 숙련을 촉진하기 위해 숙련자가 운동 기술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고 회상하는 방법을 밝힘으로써 효율적인 운동기술 학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김선진, 2000).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경기력 향상은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했을 때 훈련 시간에 따른 훈련 성과라는 측면에서 훈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연간 300일 이상, 하루 6시간 이상 훈련하면서 경기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스포츠계를 감안했을 때, 선수를 대상으로 한 훈련의 내용의 타당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력은 체력, 기술, 심리, 전술의 함수이다(Hiddink, 2002). 하지만 현재 국내 스포츠계에서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력과 기술 훈련에 치중해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해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2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의 스포츠계에서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훈련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성적에 고무된 한국 축구계에서는 유소년 축구선수 훈련 프로그램에 체력과 기술 외에 전술과 심리(2002, 대한축구협회)요인을 강화하려는 프로그램을 구성함은 물론, 국내 프로축구단에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심리학자를 고용(윤영길, 정청희와 김정수, 2004)하는 등의 변화가 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한국 축구계, 더 나아가 한국 스포츠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 축구계의 2002년 월드컵 성과를 다음 월드컵에서도 유지함은 물론 다른 스포츠에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앞서 지적한 훈련 내용의 타당성 문제도 중요하다. 초·중·고·대학 등의 학원선수나 프로 유소년팀의 클럽선수가 성장하는 양분은 훈련이다. 이러한 훈련의 내용을 구성하기 이전에 분명한 사실은 훈련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선수가 경기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훈련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목표는 숙련성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좋은 축구선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수의 훈련 내용 역시 지도자의 개인적 경험을 전수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나 전술적 특수성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경기력 구성 요소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자질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 자질을 발현시키는 근간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축구선수의 훈련 목표인 숙련성, 즉 좋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제반 조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소년 선수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원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축구 경기력의 구성

축구 경기는 선수 개개인의 경기 운용이 팀의 경기 흐름을 결정하고 이러한 경기 흐름이 다시 선수 개개인의 경기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아날로그 방식의 흐름 중심 경기이다(윤영길, 2004). 따라서 흐름의 연속성은 중요하며 흐름이 깨지는 순간 축구에서 중시되는 균형을 잃게 된다. 이러한 흐름의 인식은 선수의 심리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행동적으로 발현되며 심리적인 문제를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시키는 기제가 결국 흐름을 유지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축구 경기에서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면 경기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구계에서는 축구의 경기력을 체력, 기술, 심리 및 인지 요인의 복합함수(Hiddink, 2002)로 설명하고 있으나 축구계의 관점과는 다르게 학계에서는 인지 요인을 심리 요인의 일부로 인식하고 경기력을 체력, 기술, 심리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김의수 외, 2000) 학계와 축구계의 혼란은 이론과 현장의 괴리에서 출발했다. 학계에서는 축구의 특성 중 경기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술운용 능력의 중요성을 간과한 반면, 축구계에서는 전술을 포함한 의사결정이나 종목지능 등의 요인을 심리 요인과는 다른 단위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학계와 축구계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심리 영역에서 전술운용 능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되, 전술운용 능력을 심리의 하위 영역이 아닌 대등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축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줄 것이다(윤영길, 2004).

최근 축구계에서는 선수의 경기력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체력과 기술을 전제 조건으로 상정하던 관점과는 다르게 전술이해도를 축구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정하는 분위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체력과 기술을 강조하던 이전의 흐름과는 달리 전술이해도를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전술 변화의 영향이 크다. 최근 축구 전술에서 압박은 전술운용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대두(Abt, Dickson과 Mummery, 1999)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압박을 위해서는 개인의 움직임보다 팀의 조직적 움직임이 강조되고 결과적으로 전술이해 능력은 중요성이 커진다. 또한 경기력 구성 요소의 영향력은 선수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체력이나 기술의 비중이 연령 증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전술이해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게 된다.

축구 경기력을 다양한 요소로 설명하고 있으나 체력, 기술, 심리, 전술(김의수 외, 2000) 등은 축구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구성 요소이다. 따라서 이들 요소를 중심으로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Ⅲ. 체력적 요구

축구 경기에서 선수는 90분 경기에서 보통 8-15km를 달린다(Bangsbo와 Michalsik, 1999). 또한 현대 축구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압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싸움 역시 선수에게 중시되고 있다. 축구 경기를 위해 중시되는 체력요인은 연령이나 포지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피드, 순발력, 지구력, 민첩성, 유연성 등 신체적 능력과 체격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Apor, 1988).

스피드는 경기 상황에서 짧은 거리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능력으로 공격진영에서 공을 드리블 할 때나 중립지역에 있는 공을 다룰 때 필요한 체력 요소이다.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킥이나 패스, 몸싸움 등에서 중요한 체력 요소이다(Hrysomallis, Koski, Mscoy와 Wrigley, 1999). 지구력은 90분 동안 최소한의 피로도에서 경기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집중력 유지, 안정적 선수 기용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체력 요소이다. 민첩성은 동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좁은 공간에서 공을 다루거나 페인팅으로 상대를 따돌리는 상황에서 중시되는 체력 요소이다(Dunbar, 1999).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범위로 경기 상황에서 선수가 동작을 원활히 수행하게 해준다. 유연성은 몸의 움직임은 물론, 슈팅 등 강한 공을 찰 때나 몸싸움 등을 해야 할 때 중시되는 체력 요소이다.

축구에서 압박이 강조되기 전까지는 체력이나 기술이 경기력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최근 압박이 강화되면서 체력 요인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는 세계 축구계의 흐름에 잘 나타나는데 펠레나 마라도나처럼 체력이 바탕이 된 기술을 구사하던 선수보다는 지단(Ziddan)처럼 전술이해도가 높은 선수가 각광받게 된 이유도 축구에서 체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 체력 조건은 경기를 신체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력보다 전술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신체적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선수 개인이 공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을 가능하면 짧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수의 경기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체력은 전술이해도, 개인기술과 관계가 깊다. 이는 개인기술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동작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움직임 효율이 저하되게 되고, 전술이해도가 낮으면 경기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될 공간으로 움직인다거나 움직여야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해 같은 움직임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축구선수가 경기에서 경기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체력이 기술이나 전술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 자체만으로도 선수의 경기력을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술과 전술적 움직임은 몸을 통해 실재(實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구 경기에서 요구하는 체력의 요구에

주목한다면 몸싸움에 밀리지 않고 체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스피드, 민첩성, 유연성, 지구력 등 세부적인 체력 요소를 갖춘 선수가 성장 가능성이 큰 선수라 할 수 있다.

IV. 기술적 요구

현대 축구의 가장 큰 변화는 기술적 분화와 전술적 변화이다. 개인 기술에 주목해보면 시설과 장비의 발달로 선수는 경기중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Barry와 Milburn, 1999). 축구장 시설의 변화는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FIFA에서 제한(FIFA, 2004)하고 있으며, 축구공이나 축구화 등의 장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최근 축구 경기에서 기술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프리킥에 의한 직접 득점이 증가했다는 사실인데 카를로스(Carlos)나 벡컴(Beckham)처럼 프리킥에 의한 직접 득점이 가능한 전문키퍼가 팀내 포진하고 있다. 사실 축구 경기에서 선수는 다양한 기술적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컨트롤, 패스, 킥, 헤딩, 드리블 등 공을 가진 상태에서 기술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으며, 수비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요구되기도 한다(김의수 외, 2000).

한국 축구계에서 기술 우위의 선수가 인정받아 왔으나 월드컵 이후 기술적인 선수보다 전술적 이해력이 있는 선수가 선호되고 있다. 이는 수비의 압박이 심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개인 기술의 변화로 볼 수 있는데,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개인이 공을 소유한 시간이 길어지면 압박이 강화되고, 결국 패스의 날카로움이나 개인 돌파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에 대한 기술로 공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전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개인 기술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윤영길, 2004).

기술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구사하기 위해 컨트롤은 중요하다. 패스된 공을 안정적으로 컨트롤 하면 공을 갖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고, 시간적 여유는 안정된 플레이와 연결된다. 축구계에서 지적하는 공을 쉽게 찬다는 의미 속에는 공 보유능력이 좋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공을 쉽게 찬다는 의미 속에 공을 키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최근 변화되고 있다. 즉,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팀 공격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선수 개인이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플레이 스타일이 변하고 있다.

현대 축구는 전적으로 패스게임이기 때문에 패싱 능력은 중요한 기술적 요인이다. 안정적으로 컨트롤 한 공을 전개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패스(Silva, 2002)인데, 패스는 단순히 공을 연결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패스된 공의 속도나 방향은 물론 공의 회

전도 고려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패스를 받는 선수의 특성까지도 고려한 기술적인 패스가 강조되고 있다.

현대 축구에서 중시되는 또 하나의 흐름은 포지션 전문화이다. 과거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등으로 분화되던 포지션은 현대 축구에서 1번 골키퍼, 2, 3번 좌우측 수비, 4, 5번 중앙 수비수, 6번 수비형 미드필더, 7, 11번 좌우측 공격수 등 포지션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포지션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도 다양화되고 있다(Burwitz, 1997).

기술이 지금의 추세대로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된다면 기술적 측면에서 프리킥이나 패싱 능력, 공간 침투는 중요성이 커진다. 왜냐하면 효율성 관점에서 본다면 공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가 움직일 때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로운 선수에게 공이 패스될 때 공격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장비의 발달은 공이나 축구화를 변화시켜 보다 다양하고 빠른 구질의 공을 구사해야 경쟁력 있는 전문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페스나, 다양한 구질을 구사할 수 있는 킥력 등의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축구에서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중요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V. 심리적 요구

축구계에서 축구 경기력에서 심리요인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축구계에서 심리요인의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국 축구계에서 지도자의 대부분은 선수를 길러내는 과정에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접근으로 선수를 지도해왔다. 즉, 훈련이나 경기에서 어린 선수가 지도자가 원하는 수준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지도자는 선수에 대한 체벌(함정혜, 1997)과 꾸중으로 선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 이는 선수가 성장해 성인 무대에서 성장해가는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학원스포츠의 지도방식에 길들여진 선수들이 성인이 되어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비교적 잘 나타난다. 지도자의 명령에 길들여졌던 선수가 성인이 되어 지도자의 지시가 사라지면 경기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문제는 K-리그에서 각 팀의 외국인 감독 부임 초기에 잘 나타난다(윤영길, 정청희와 김정수, 2004). 한국 선수들은 코칭스텝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는데 외국인 감독은 선수 스스로 풀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로 인해 K-리그에서 팀 분란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끔씩 접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선수 개개인의 축구에 대한 자신감으로 귀결

된다. 유소년부터 지도자가 선수로 하여금 지도자에게 의존성을 갖도록 지도해 선수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축구 선수의 경기력에 근성과 승부욕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극한 상황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승리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근성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성향(김원배, 2001)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근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수행을 유지하는 기저에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포기하지 않아 좋은 결과를 얻었던 과거 경험이 자리한다. 좋은 선수는 강한 근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유소년기를 거치며 학습되고 체화(體化)된 요인이다.

또한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 역시 중요하다(김병준, 2003). 훈련이나 체력 등 경기력관리를 비롯해 몸 관리, 생활관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신의 경기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002월드컵 대표팀에서 고참선수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행동했었고, 신인선수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선수들의 존재가 4강의 결실을 맺는데 일조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선수 개인의 차원만을 고려했을 때도 자기관리를 잘한 선수는 30대 중반까지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팀이나 개인에게 있어 자기관리의 중요성(이임생, 2002)을 보여준다.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 상황에 몰입해야 한다. 축구 경기가 90분 동안 쉼 없이 진행되고 한점으로 승부가 결정된다는 사실과 수초의 짧은 시간에 득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일은 중요하다.

종합해보면 심리적인 요구는 자신감이나 자기관리 집중력 등이 바탕을 이루고 이러한 바탕 위에 동기적인 차원과 정신력의 상호작용으로 도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선수 개인의 성장 동력인 심리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적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2002년 월드컵 이후로 부각되어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의 유소년훈련프로그램(김의수 외, 2002)이나 프로 축구팀에서 심리 처치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VI. 전술적 요구

좋은 축구선수가 되기 위한 전술적인 요구는 크게 생각하는 플레이, 창의력, 판단력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 축구에서 생각하는 플레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한국선수들은 생각 없이 축구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부하는 선수로 키우자는 비

난(대한축구협회, 1997)이 수식어처럼 따라다닌다. 하지만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공부란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의 학과 공부는 아니다. 학생 선수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학교의 학과 공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선수란 축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부하는 선수가 드물다는 지적에는 선수의 성장 환경이 중요하다. 앞서 지적한 지도자의 냉소와 부정적 지도방법으로 유소년 선수의 대부분은 잘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지 않기 위한 훈련에 익숙해있다. 학원스포츠에서 지도자의 체벌은 심각한 수준인데 선수가 훈련이나 경기에서 지도자의 요구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체벌을 감수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는 체벌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발상을 포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술맹 선수로 자라게 된다.

중·고등학교 시절 체벌이 심한 지도자에게서 자란 선수는 대학이나 실업, 프로에서 체벌하지 않는 지도자에게서는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가도 멍하니 뭔가 자극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또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쉽게 도태되는데 결국 선수의 전술적 이해도는 청소년기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는 플레이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경기 상황에서 선수가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이다. 이는 자신의 위치와 상대방의 위치는 물론 우리팀 다른 선수의 위치, 심지어 터치라인이나 심판의 위치까지도 끊임없이 확인한다. 바로 이것이 경기 상황을 읽어내는 눈이다. 또한 생각하는 플레이어라는 의미에는 공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공이 오면 반응할 수 있는 선택안을 마련하는 활동이다.

창의력은 생각하는 플레이에 기반을 두고 자신에게 공이 왔을 때 패스 상황에서 잘 나타난다. 생각도 못했던 공간에 패스를 연결해 위협적인 공격 상황을 만들어 낸다거나, 오프사이드트랩을 뚫고 나가는 움직임들에서 볼 수 있으며, 축구에서의 창의력은 공간 지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순간판단력은 매순간 전개되는 선택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생각하는 플레이어의 바탕에서 전개되는 활동이다.

현대 축구에서 압박이 강화되면서 전술적 요구가 점차 중시되고 있다(Albert, 2002). 체력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선수는 압박이 강화되면 플레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전술 활용 능력이 중시되는데 전술 운용이 중시되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팀의 공을 소유한 시간은 최대화하면서 선수 개인이 공을 소유한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전술 적용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패스의 전술적 활용이 중시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전술적으로 경쟁력 있는 선수이기 위해서는 패스의 전술적 활용

능력이 뛰어나야 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전술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는 생각하는 플레이의 바탕에 창의력과 순간판단력을 갖춘 선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전술 활용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와 지도자의 지도철학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VII. 맺음말

좋은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체력, 기술, 심리, 전술적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완벽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기력을 결정하는 체력, 기술, 심리, 전술 등의 네 요소를 고루 적당히 잘 해서는 좋은 축구선수로 성장하기 어렵다.

좋은 축구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훈련을 거쳐야 한다(신동성, 1997). 그 과정에서 체력, 기술, 심리, 전술적 능력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평균에 근사하게 된다. 따라서 선수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선수 개개인의 장점은 중요한 평가 차원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평가는 축구 경기력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2002년 월드컵 대표팀에 홍명보 선수가 합류한 이유 중의 하나가 경기장에서의 리더 부재였다(홍명보, 2002). 결국 좋은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력, 기술, 심리, 전술 등의 기본적인 자질 중 부각되는 요소의 보유 여부이다.

또한 좋은 축구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는 중요하다(Jacque, 2002). 선수의 성장기에 적절한 자극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중요하고, 성인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포메이션을 채택하면서, 최대한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을 부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하다.

좋은 축구선수는 결국 유럽의 메이저 리그나 월드컵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이다. 좋은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축구에서 중시되는 장점 하나 이상을 갖고 태어나 체력, 기술, 심리, 전술 등 축구에서 중시되는 제반 요인을 훈련을 통해 연마하는 선수 중 자신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포메이션을 채용하고 포지션을 부여해주는 지도자를 만난 선수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선진(2000). 운동학습과 제어. 도서출판 대한미디어.
- 김선진, 박승하(2001). 동적 자세 조절 능력의 발달 단계적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2, 2, 13-23.
- 김병준(2003). 운동선수 자기관리행동의 측정. *체육과학연구*, 14, 4, 125-140
- 김의수, 허정무, 조영증, 오규상, 옥정석, 김용진, 조규천, 이강석, 이용수, 조순목, 이성철, 김종환(2000). 축구 기본기술 및 전술 트레이닝, 두남
- 김원배(2001). 투기종목 선수의 정신력 개념구조 탐색 및 측정 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대한축구협회(2003). Korea football Agenda 11: 한국축구장기 발전계획.
- 대한축구협회(1997). 유년·초·중학교 육성방안. 우리의 축구 우리의 미래. 1997 축구 발전을 위한 세미나.
- 박승하(2002). 배구 숙련도에 따른 수비자의 예측 능력과 시각탐색 전략 및 지각한 시각-초점 영역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동성(1997). 훌륭한 선수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추계 심포시엄. 31~88.
- 유정애(2000). 교사 전문성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7, 2, 41-59.
- 윤영길(2004). 축구경기력 결정 심리요인의 위계적 중요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영길, 정정희, 김정수(2004). 프로축구단을 대상으로 한 심리기술훈련의 기반 탐색, 한국스포츠심리학회 동계워크샵 논문집, 163-171.
- 이임생(2002). 경기력 향상을 위한 프로축구 선수들의 자기관리 전략.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명보(2002). 영원한 리베로, 은행나무:서울
- 함정혜(1007).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활동 및 체벌실태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6, 4, 143-162.
- Abt, G. A., Dickson, G., & Mummery, W. K.(1999). Goal scoring patterns over the course of a match: Ananalysis of the australian national soccer league. school of Health and Humman Performance, Central Queensland University, Pockhampton, Austrlia
- Albert, R.(2002). 전술의 발달. 기술보고서 506. 대한축구협회
- Apor, p.(1988), Successful formula for fitness training in Science and Football, London, 95~107.

- Bangsbo, J., & Michalsik, L.(1999). Assessment of the physiological capacity of elite soccer players. Institute of Exercise and Sport Sciences, August Krogh Institute, University of Copenhagen, Denmark
- Barry, E. B., & Milburn, P. D.(1999). The traction of football boots. RMIT university, Melbourne, Australia.
- Burwitz, L.(1997). Developing and acquiring football skills. Division of sport science, crewe+alsager Faculty, the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Hassall Road, Alsager, Stoke-on-Trent, ST7 2HL, England.
- Chase, W. G. & Ericsson, K. A.(1981). Skilled, Memory. In J. R. Anderson(Ed), cognitive skills and their acquisition. pp. 141-189). Hillsdale, N. J.:Erlbaum.
- Dunbar, G. M. J.(1999). An examination of longitudinal change in aerobic capacity through the playing year in english professional soccer players, as determined by lactate profiles. Nike Lab, London, UK.
- Hiddink, G.(2001). Korea team & European teams - Comparative View. NFC 완공기념세미나. 대한축구협회.
- Hrysomallis, C., Koski, R., McCoy, M., & Wrigley, T.(1999). Correlations between field and laboratory tests of strength, power and muscular endurance for elite australian rules footballers. Center for rehabilitation, *Exercise and Sport Science*, Victoria University, Melbourne, Astralia.
- Jacque, E.(2002). 지도자의 자격요건. 기술보고서3. 대한축구협회.
- Mcperson, S. L.(2000). Expert-Novice Differences in Planning Strategies During Collegiate Singles Tennis Competition.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2, 39-62.
- Mcperson, S. L. & Thomas, J, R.(1989). Relationship of knowledge and decisions in boys' tennis: Age and expertis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48, 190-211.
- Sparow, W. A. & Irigarry-Lopez, V. M.(1987). Mechanical efficacy and Metabol cost as measures of learning a noveligross motor task. *Journal of motor Behavior*. 19. 240-264.
- Simon, H., & Chase, W.(1973). Skill in chess. *American scientist*, 61, 394-403.
- Silva, E. D.(2002). 패스훈련. 기술보고서4. 대한축구협회.

인터넷

FIFA(2004). www.fifa.com

<Abstract>

Conceptualization on expert football player

Chung, Chung-hee* · Yun, Young-Gil**

Players' performance has been evaluated by multiple factors. Sports performance means display of players' ability that is decided by interactions of various factors such as physical strength, skills, strategies, psychology, and so on. Players' performance is described as the professionalism of sports, which players are participating in. Players need to maintain their peak performance through long term preparation, efforts, and training to display their ability. In order to maintain and enlarge accomplishments of the Korean football in 2002 Worldcup, there should be different approaches and consideration of the validity of training contents. Players in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college, or players in professional youth clubs can be improved by training. However, there has not been an agreement about the conditions of good players, so players' training contents are based on coaches' personal experiences. This study was to examine expertise on training good football players--that is, basic conditions of being good football players. As to the needs of physical strength in football game, players, who distribute physical strength efficiently and have speed, agility, flexibility, endurance, are possibly good football players. In the aspect of skill, the ability of pass utilizing the space and that of kicks are critical in football performance. Psychological aspects are interactions of motivation and mental toughness based on self-confidence, self-management, and concentration. After the 2002 Wordcup, there has been consideration for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in psychological aspect of players, which is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In the strategical aspect, competitive players who have creativity and instant judgement based on thinking play. However, the reason that there is not outstanding player has ability of utilizing strategies in Korea is associated with coaches' philosophy in coaching. Good football players are those who display their abilities in European major league or Worldcup. In order to be a good player, players need to improve foundational components like physical strength, skills, psychology, and strategies by training. Moreover,

*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players should meet coaches who make them display their strengths and give them an appropriate position to be a good player.